AG 6연속 2위 수성을 향하여 … 가자! 인도네시아로

"잘 싸우고 오겠습니다"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수들이 이낙연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선수단 아시안게임 결단식…39개 종목 1044명 파견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6회 연속 2위 수성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대한체육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SK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결단식에는 약 600명의 선수단이 참석해 출전 결의를 다졌다. 선수들은 청색 바지와 흰색 재킷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선수단 단복을 착용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전병극 문체부 체육협력관, 김성조 한국 선수단장이 참석해 장도에 오르는 선수단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65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1998년 방콕 대회 이래 6회 대회 연속 2위에 도전한다. 카드 두뇌 게임인 브리지를 제외한 39개 종목에 선수 807명, 경기임원 186명, 본부임원 51명 등 104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남북은 여자 농구,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아시아 경쟁국과 기량을 겨룬다. /연합뉴스

믿고 보는 양궁 … 金 싹쓸이 도전

금메달 8개…혼성 메달 신설 32년만에 3관왕 탄생 기대

양궁은 아시안게임에서나 올림픽에서나 가장 '믿고 보는' 종목 중 하나다. 매 대회 여러 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며 세계 최강국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치열한 선발전을 뚫고 태극 마크를 단 양궁 대표팀 선수들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한 번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엔 양궁 종목에 모두 8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리커브 남녀 개인과 단체에 혼성이 추가됐고, 컴파운드에서는 남녀 단체와 혼성 세 종목이 치러진다.

7개월여에 거친 치열한 국가대표 선발전을 뚫은 대표팀은 리커브·컴파운드 남녀 4명씩 모두 16명이다.

리커브 남자 김우진, 이우석, 오진혁, 임동현, 여자 장혜진, 이은경, 강채영, 정다소미, 컴파운드 남자 김종호, 최용희, 홍성호, 김태윤, 컴파운드 여자 소채원, 최보민, 송윤수, 김윤희가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리커브의 경우 최종 선발전과 세 차례의 월드컵 성적, 아시안게임 예선 성적까지를 합산해 남녀 상위 2명이 개인전에 나서고, 3등까지가 단체전, 남녀 1등은 함께 혼성전을 치른다. 남녀 전체 1등은 3관왕에 도전할 수 있지만 4등은 한 종목도 뛰지 못하고 예선을 끝으로 도전을 접어야 한다.

현재 남녀 세계랭킹 1위인 김우진과 장혜진이 각각 남녀 선두를 달리고 있고, 막내 이우석과 이은경이 나란히 2위다. 리우올림픽 2관왕인 장혜진은 아시안게임 첫 개인 메달에 도전하고, 김우진은 2010 광저우 대회 이후 정상 탈환에 나선다.

그러나 선수들 간의 점수 차가 크지 않고 아시안게임 예선의 배점이 커서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연합뉴스

KIA, 1728㎞ 고난의 행군…지금 필요한건 '체력'

임창용

김선빈

윤석민

AG 휴식기 앞 2연전 체제 … 10일간 8게임 고척~광주~인천 이동
4위~7위 3경기차 자리다툼 치열 … 넥센·롯데 등 중위권과 혈투 예고

1728㎞의 고난의 행군에 '호랑이 군단'의 가을 성적이 달렸다.

KBO리그는 지난 10일 휴식일을 보낸 뒤 11일부터 2연전 체제로 전환했다. 오는 16일 추가 편성된 1경기를 제외하고, 10개 구단은 아시안게임 휴식기에 앞서 2연전의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2연전 일정은 10구단 체제에 따른 방안이다.

각 팀은 한 시즌에 팀 간 16차전씩, 총 144경기를 치른다. '16차전'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안방에서 공평하게 8경기씩을 치러야 하는 만큼 홈 8경기, 원정 8경기가 편성된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3연전 일정을 두 번 치르고 난 뒤, 2경기가 남는다. 이 경기를 소화하기 위해 2연전 일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장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에 2연전이 배치되면서 선수들의 부담은 크다. 특히 지방 구단은 '이동거리'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지난 주말 두산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2연전을 시작한 KIA는 고척-광주(롯데)-인천-광주(LG)에 이어 16일 추가 편성된 롯데와의 원정 한 경기까지 소화를 해야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맞을 수 있다.

고척행을 시작으로 마지막 사직 경기를 치르고 광주로 돌아오기까지 10일간 KIA가 달려야 하는 길은 무려 1728㎞에 이른다. 이동 거리만으로는 10개 구단 중 1위다.

홈에서 7경기를 치르는 두산과는 극과 극이다. 지난 주말 광주를 다녀간 '선두' 두산은 잠실(한화)-수원-잠실(롯데)-잠실(SK)-잠실(넥센) 스케줄을 소화한다.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짐을 쌓았다 풀었다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KIA 선수들은 체력이라는 또 다른 상대와 싸움을 벌여야 한다.

여기에 치열한 중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팀들과 만남이 이어지는 만큼 '8월의 2연전'은 KIA의 올 시즌 농사를 좌우할 중요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KIA는 7일 넥센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롯데-SK-LG 다시 롯데를 상대한다. 2위 굳히기에 들어간 SK를 제외하고는 모두 4·5위 자리를 놓고 피말리는 순위 싸움을 하는 팀들이다.

7일 경기 전까지 4위 LG부터 넥센, 삼성, KIA까지 4팀은 3경기 차에서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

롯데도 KIA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롯데는 아시안게임 휴식기까지 가장 많은 3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대이지만,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KIA가 4승 5패로 뒤져있다. 최근 하락세지만 LG 역시 상대 전적에서 KIA가 5승 7패로 열세다.

선수들의 체력이 중요한 전력이 되면서 KIA는 이번 고척 원정에 '맏형' 임창용을 동행시키지 않았다. 광주에 남아 개인 훈련을 하며 9일 선발 등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넥센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고난의 행군에서 KIA가 악조건을 딛고 '가을 잔치'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방출 ↔ 이적 반복 한 해 유니폼만 5장

드레이크, MLB 최초 선수

미국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는 선수들은 한 해에만 서로 다른 유니폼을 몇 차례 바꿔 입는다.

가령 마이너리그 더블 A에서 트리플 A로 승격돼 빅리그의 콜업을 받은 선수라면 벌써 3번 유니폼을 갈아입은 셈이 된다.

오른손 투수 올리버 드레이크(31)란 투수는 한해에 5개 빅리그 유니폼을 입은 최초의 선수라는 기록을 세웠다.

예상치 못한 그의 저니맨 인생은 올해 시작됐다.

지난 5월 밀워키에서 방출 대기 통보를 받은 그는 빅리그 세 번째 팀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현금 트레이드됐다. 하지만 5월을 넘기지 못하고 인디언 유니폼을 벗었고, 곧바로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보름 남짓 '천사'들과 함께 하다가 6월 20일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7월 24일 에인절스에서 버림받은 그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갔다가 나흘 후 다시 방출 통보를 접했다.

실의에 빠진 드레이크를 미네소타가 8월 4일에 붙잡았고, 이튿날 곧바로 빅리그 마운드에 올렸다. /연합뉴스